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15 주차 (롬 5:1~6)

(2017년 4월 16일 - 2017년 4월 22일)

(제5권 15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15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7년 4월 16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초 (주일)

오늘의 본문 (롬5:1-2)

- 1 Δικαιωθέντες οὖν ἐκ πίστεως (그러므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εἰρήνην ἔχομε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지고 있다)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 2 δι' οὗ (그를 통하여)
καὶ τὴν προσαγωγὴν ἐσχίκαμεν [τῇ πίστει] εἰς τὴν χάριν ταύτην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들어감을 지녀왔다)
ἐν ᾗ ἐστήκαμεν (우리가 서 있는)
καὶ καυχώμεθα ἐπ' ἐλπίδι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자랑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희망이라는 말이 있다. 희망은 어떤 일을 하거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니 희망은 언제나 긍정적이다. 그 누구도 불행을 기대하고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한다. 특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숨쉬며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실낱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절망은 희망의 반대말이다. 절망이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는 감정 상태다. 모든 가능성이 막혀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이를 희망 대신 소망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다. 희망이든 소망이든 그게 그거 아니냐며 불멘소리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만큼은 세상의 언어인 희망이 아니라 성경의 언어인 소망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 싶다.

소망의 헬리어 원어는 ‘엘피스’ (ἐλπίς)다. 소망은 자신의 원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소망은 단순한 기대보다는 믿음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단어다.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는 막연한 기대를 희망이라 한다면 확실한 근거를 기초로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 한다. 성경 단어 사전에 의하면 ‘엘피스’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희망이 그 근거를 인간 즉, 세상에 둔다면 소망은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확신이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희망과 소망은 그 근거가 서로 다른 완전히 별개의 단어다.

희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 현실의 삶은 각자의 기대와는 달리 어그러질 때가 많다. 우리의 기대는 늘 막연하며 그렇다고 뭔가 뽀족한 대책도 없다. 그저 노력한 만큼 이 세상에서 잘될 것이고, 열심히 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희망의 속삭임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는 동안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차지한다. 많은 경우 세상은 희망이라는 단어로 인간을 고문하기도 한다. 하기사 그것마저 사라져 버리면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을테니 희망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속이고 고민하고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그 희망이란 것에 매달려 있던 인간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막연한 기대를 하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였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 낸 그 영광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 바울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소망 위에 선 자들이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약속하신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전부다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이 소망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일은 반드시 실제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바로 이 약속에 기반한다. 약속이 먼저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뒤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은 맹신이고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민 23:19).

이 말씀은 음란한 이방인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 때론 딱딱한 현실이 우리를 가로 막아서 사방으로 옥여쌈을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론 세상의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팔매질을 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이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희미해질 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는 말은 한 번 언약을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성취해 내신다는 말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발판은 너무도 견고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때문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어떻게 다른가요? 당신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망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그 소망이 당신의 현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환란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5:3-4)

³ οὐ μόνον δέ, (그리고 그뿐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καυχώμεθα ἐν ταῖς θλίψεσιν, (우리는 환란에 있음을 자랑한다)

εἰδότες ὅτι ἡ θλίψις ὑπομονὴν κατεργάζεται,

(우리가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⁴ ἡ δὲ ὑπομονὴ δοκιμὴν, (인내는 검증을)

ἡ δὲ δοκιμὴ ἐλπίδα. (검증은 소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한다. 당연한 말이다.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을 언급한다. 영광이 아닌 환란에 처하면 어찌 되는 것인가? 원치 않는 일이 파도처럼 연이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영광의 소망 위에서 있다고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초대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된 그 날 이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앓은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던 스테반은 복음을 선포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는 스테반이 죽는 순간에도 하늘의 천사들을 보며 세상 어떤 얼굴보다 밝은 표정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기록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간 그의 육체적 고통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도 인간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겠는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3 년간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듣고 배웠던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한 채 헤롯왕의 칼에 죽었다. 그도 형제 요한처럼 말년까지 복음을 전하며 오래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는가? 바울도 그렇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매하게 받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 뻔 하였으니 ²⁴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번 맞았으며 ²⁵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²⁶ 여러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²⁷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지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7).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환란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환란에 있음을 자랑한다. 여기서 특별히 그는 ‘나’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를 썼다. 우리라는 말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 나아가 오늘날 로마서를 읽는 우리까지 모두 포함된다. 게다가 바울은 현재 시제를 썼다. 지금 현재 환란 가운데 있음을 자랑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우리 역시도 지금 환란 가운데 있다는 말이며, 또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어에서 현재 서술형은 그 자체로 사실이거나 아니면 주장을 뜻하는데 바울은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환란이라는 단어를 단지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오는 핍박으로 한정하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자신이 모든 로마 제국의 거주민들이 그

토록 원했던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더욱 중시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이다. 낯선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 때론 환대를 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대적인 사람들도 많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 이 땅에 남아 있을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²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요 16:1-2).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낯선 이방 세계일 뿐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언제나 나그네다. 본시 나그네란 본향을 떠나 잠시 낯선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곳이 본향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는 나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벗어버려야 할 짐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온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우리 내면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던 세상 가치와 새롭게 우리 내면에 거하게 된 그리스도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기 시작한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 가치가 더 좋고 선하게 보인다. 하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는 실상은 그 반대다. 우리가 옳고 선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심어주신 사랑이라는 최고의 율법으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환란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 내면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게 되는 운명적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⁷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⁸ 우리가 사방으로 옥여짚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⁹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¹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¹¹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4:7-11).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일반적인 고통을 의미하지 않는다. 속 썩이는 사춘기 자녀 때문도 아니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도 아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것도,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것도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환란은 나를 내세우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통해 나타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되는 고통이다. 질그릇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일 뿐임을 깨달아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환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내면의 고통과 씨름하며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란이 얼마나 자랑스럽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말한다.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음을 자랑한다고!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구원 받고 난 후 어떤 환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 환란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그 환란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5:3-4)

³ οὐ μόνον δέ, (그리고 그뿐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καυχώμεθα ἐν ταῖς θλίψεσιν, (우리는 환란에 있음을 자랑한다)

εἰδότες ὅτι ἡ θλίψις ὑπομονὴν κατεργάζεται,

(우리가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⁴ ἢ δὲ ὑπομονὴ δοκιμὴν, (인내는 검증을)

ἢ δὲ δοκιμὴ ἐλπίδα. (검증은 소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부요하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장수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걸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우리 나라 최고의 부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교인이다. 소위 SKY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면면을 보아도 특별히 그리스도인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요하지도 않고 장수한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다.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남보다 더 많은 환란을 당하고, 더 큰 수모를 당하고, 더 고통스럽게 살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를 주셨으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기 일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때리고 핍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진리를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큰 고통이었다.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⁸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⁹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7-9).

예레미야는 종일토록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에 걸맞은 보상은 못할 망정 적어도 사람들로부터 보호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고 마땅히 그러셔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고통은 너무도 가혹했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몇 번이고 이렇게 다짐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런 다짐을 하면 할수록 그의 내면에 자리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충동질했다. 고통 당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이 그의 중심에 불을 질러댔다. 그 불은 골수에까지 사무쳐 급기야는 뛰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했고 그렇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마음에 불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길을 택했다.

바울이 말하는 환란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진리를 주셨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마냥 기쁨만 주시는 건 아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절대시해 온 우리들에게 환란은 필연적이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성령님의 속삭임을 끊임 없이 듣게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내면의 소리를 심중에 불 붙는 것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다.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무너만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가 드러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모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뿔뿔 뭉쳐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며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기를 요구하신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온 몸이 쭈시고 아픈 것처럼 믿음도 그런 고통이 수반된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환란이라 말했고 그 환란을 통과하는 과정을 인내라고 말했다.

오늘날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처럼 우리에게 진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거나 핍박하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에 대해 침묵한다고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환란 가운데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갈아입는 것이 여전히 고통스런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오히려 ‘변영’으로 포장되고 변질된 신앙이 오늘날 이렇게 판을 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소위 말하는 변영 신학은 세상 가치를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요삼 1:2) 한다 하지 않았느냐? 영혼이 잘되는 사람들이 범사에 다른 것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게 뭐가 잘못 되었냐고 말한다. 게다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셨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나누어 주셨으니 이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말한다. 얼핏 들으면 일리있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를 하나님의 것인 양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그만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어깨를 으쓱대지도 않고, 세상의 잣대에 의해 위축되지도 않는다. 환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바로 세상의 것들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세상의 것을 아예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수반한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믿음의 과정에 왜 인내가 필요한가요?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당신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인내해 가고 있습니까?

인내는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5:3-4)

³ οὐ μόνον δέ, (그리고 그뿐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καυχώμεθα ἐν ταῖς θλίψεσιν, (우리는 환란에 있음을 자랑한다)

εἰδότες ὅτι ἡ θλίψις ὑπομονὴν κατεργάζεται,

(우리가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⁴

ἢ δὲ ὑπομονὴ δοκιμὴν, (인내는 검증을)

ἢ δὲ δοκιμὴ ἐλπίδα. (검증은 소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²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³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줄 너희가 앎이라 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24).

주의 형제 야고보는 권면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직역하면 “형제들이여, 당신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라는 뜻이다.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리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 (πειρασμός)이다. 이 단어는 유혹이나 세상이 주는 시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사물이나 물질의 실제 성질을 알아 내기 위한 시험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시험은 무엇일까? 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야 할까?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모든 시험 (페이라스모스)은 자신의 그리스도인 됨을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개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속 썩이는 자식 하나 없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며, 온 가족이 건강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며, 불우 이웃 돕기를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야고보는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견디기 힘든 환란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며 그것이 곧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고, 바울은 연단이라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시련과 연단은 헬리어로 도키마조 (δοκιμάζω)라는 단어에서 출발한다. 도키마조는 광석이 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진위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풀무불에 넣어 녹여내는 과정을 말한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금광석 안에 있던 정금이 흘러 나오게 된다. 만약 어떤 광석이 금을 포함하고 있는 금광석인 줄 알았는데 막상 풀무불에 던져 놓아 보니 돌이 모두 불타 없어지고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금광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시험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통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 특별히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길고 긴 고통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세

상의 모든 짐을 홀로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내면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인내는 헬라어로 ‘후포모네’(ὕπομονή)다. 특정한 장소에서 큰 돌에 눌러 있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형국에 처한 경우를 뜻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발버둥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 줄 누군가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라는 단어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있는 단어다. 항해를 하는데 폭풍우가 친다고 가정해 보자. 풍량이 일어 배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이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일 것이다. 오랜 항해 경험이 있는 사람, 과거에 수많은 풍랑을 만나 본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폭풍우는 잠잠해질 것이고 배는 결국 목적지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처음 배를 타본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반응은 판이할지라도 처음 배를 탄 사람이나 베테랑 선원이나 처한 상황은 동일하다. 베테랑 선원이라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풍랑에 배가 침몰한다면 모두가 죽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아무리 베테랑 선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은 무척이나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둘 다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저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인내는 기다림이다. 마음 졸이며 두려움에 떨든, 그보다 여유가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견뎌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란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환란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누구든 일단 그 시험을 만난 이상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것을 인내라 한다. 하지만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들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우리를 정금으로 빚어내기 위해 풀무불 가운데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결과는 정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옴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했다.

“⁸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⁹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¹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8-10).

옴은 영문도 모른 채 고난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부단히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으나 결국은 찾지 못했다. 목이 쉬어라 하나님을 불렀다. 이리 저리 사방을 둘러 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대책없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가 고백한다. 지금 그는 자신이 가는 목적지도 모른다. 고난이 언제쯤 끝날지도 모른다. 이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자기를 훈련하고 있고 언제 그 훈련이 끝날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옴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로 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시고 계시는 한 그 결과는 뭐가 됐든 반드시 정금이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내는 참을성이 아니다. 인내는 내가 처한 상황들이 내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고대하는 기다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언제나 값지다.

목상을 위한 질문

환란이 인내를 인내가 검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당신은 인내를 통해 무엇을 검증받았습니까?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5:3-4)

⁵ ἡ δὲ ἐλπίς οὐ κατασχύνει,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ὅτι ἡ ἀγάπη τοῦ θεοῦ ἐκκέχυται ἐν ταῖς καρδίαις ἡμῶ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τοῦ δοθέντος ἡμῖν.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을 통하여)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들은 언제 실망하는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될 때 실망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발목이 잡혀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잊기 위해 미래의 꿈을 현재로 끌어와 소비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에 매몰되어 현재는 있는 등 마는 등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다. 그렇다보니 인간들에게 가장 익숙한 감정이 죄책감, 실망감, 좌절감이다. 죄책감이 과거의 일 때문이라면 실망감과 좌절감은 기대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낀다는 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하다’라는 헬리어 동사는 ‘카타히스쿠노’ (κατασχύνω)다. 이 단어는 소망이 헛것이 되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나 창피함을 의미한다. 기대했던 것이 헛것이 되었다고 수치심까지 느낄 필요는 없다. 그저 실망하고 말면 그뿐이다. 좀 더 큰 기대를 했다면 좌절감을 느끼면 될 일이지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카타히스쿠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 때문이다. 소망은 그 자체로 우리로 하여금 팍팍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원동력이다. 성경은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¹⁷ 하나님은 약속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¹⁸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¹⁹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²⁰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히 6:17-20).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단지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팍팍한 현실로부터 생겨난 힘든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인도되는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

가를 지신 그분의 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소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를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만들어 주신 소망 말이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일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일을 경험한다.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속기도 한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치장을 하고 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든 의로 그 앞에 서는 것도 아니다.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¹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¹¹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¹²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¹³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13).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바로 죄인이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수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남편을 여섯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어땠을까? 인간들 앞에서도 수치심을 당하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바로 그것이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수치 가운데 내어 줌으로써 만드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수치를 당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당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세상의 일이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소망으로 인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약속한 바로 그 시간에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5:6)

⁶ Ἐτι γὰρ Χριστὸς ὄντων ἡμῶν ἀσθενῶν ἔτι κατὰ καιρὸν ὑπὲρ ἀσεβῶν ἀπέθανεν.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약속된 그 시간에 그리스도가 불경건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한글 성경은 로마서 5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바울의 선언은 짧고도 간결하다. 하지만 그 한 구절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매우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 구원받은 자들의 무력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불경건한 자들을 대신함, 이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은 성립할 수 없다.

먼저, 복음은 약속에 기반한다. 약속은 이행할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시기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도 모두가 그 약속의 수혜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아무런 희생도 치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통해 구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박으신 일,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피흘림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⁴³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⁴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⁴⁵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⁴⁶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⁴⁷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⁴⁸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⁴⁹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⁵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²¹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²²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 9:13-22).

첫 언약 즉, 구약도 피로 죄를 사했고, 신약도 피로 죄를 사한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내내 행해온 피흘림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피흘림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일종의 리허설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피흘림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인류 구원의 핵심이다. 언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면 언약을 이행하는 방식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약의 이행 시기다. 언제 그 언약을 시행할 것인가? 로마서 5장 6절은 “약속된 그 시간에”라고 말하고 있다. 약속된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말한다. 인간은 그 시기를 몰랐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조차 그를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약하신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³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⁵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3-5).

하나님은 때가 온전히 차기까지 기다리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2000년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것일까? 어떻게 그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적의 시기였을까?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시기를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이후,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후 사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 동안 나라를 잃은 유대 백성들은 외세의 억압과 통치 속에 속절없이 당하며 살아야 했다. 특히 알렉산더 제국의 확장과 함께 들어 온 헬레니즘 문화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뿌리 채 뽑아버릴 기세였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나라를 잃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죽기살기로 저항했고 마침내 일시적이거나 자치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주의로 변질시켜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더 촘촘하게 만들어 철저하게 지키려 노력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전통과 유전들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들에게 찾아 온 하나님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건네주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눈 멀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이다. 때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일 수 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될 수 있는 시기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에 넣기 위해 유대인들이 최고로 강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이 강박해진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욕망 때문이었다.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욕심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되었다. 하나님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사백 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셨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언제입니까? 왜 그때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불경건하고 무력한자를 대신하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5:6)

⁶ Ἐτι γὰρ Χριστὸς ὄντων ἡμῶν ἀσθενῶν ἔτι κατὰ καιρὸν ὑπὲρ ἀσεβῶν ἀπέθανεν.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약속된 그 시간에 그리스도가 불경건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실존에 관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무력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불경건한 자이다. 경건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깨끗하시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이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기 전까지 인간은 거룩과 경건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순간 그에게 죄가 역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선악 판단을 인간이 함부로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행사했던 선악 판단을 인간이 하게 되었고 그제 쌓여 유대의 전통과 유전이 되었으니 갈수록 더 잘 시시비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흠도 발견해내는 현미경같은 율법을 가졌으니 이전보다 더 경건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말을 해대거나, 술 담배도 끊지 못한다거나, 세상 문화를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것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경건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도 예외없이 죄인임을 선언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인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노인 이든, 여자든 남자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든,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이든 무식하다 손가락질 받는 야만인이든, 로마 시민권자든 식민지에서 끌려 온 종들이든 예외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 모두가 불경건하며 불의하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고 그렇기에 그들 모두가 구원 받아야 할 대상이다. 경건은 인간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노라 자랑하던 바리새인보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며 떨찍이 서 있던 세리를 하나님은 더 경건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경건은 거룩한 옷을 입고, 교양있는 목소리로,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준 대제사장들이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어 별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이 경건하고 거룩하며 순결하신 분이다. 왜 줄 아는가? 경건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경건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선언했다. 누구나 구원을 받으려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늘 말조심하고, 남이 보지 않아도 몸을 단정히 하며,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도 불경건한 자다. 구원을 받기 전의 인간은 누구나 다 불경건한 자들이다. 경건은 상대적인 잣대로 매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낮아진 존재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수없이 기부를 하며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사역에 힘쓴다고 해서 경건한 자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지 않으면 경건해질 수 없다. 그런 자들에게선 단 한 줌의 경건도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대신하였다는 말은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자리바꿈을 했다는 말이다.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을 생각해 보라. 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

습이다. 각자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염치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모두 ‘연약하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무력할 때이다. ‘연약(軟弱)은 약하기는 해도 힘이 아직 남아있는 걸 의미한다. 반면에 ‘무력(無力)은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어 전류가 아예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힘이 약한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들인 것이다.

힘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구원을 받기 전 인간의 실존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단 하나의 의도, 단 하나의 경건도 만들어 낼 수 없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의와 경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마치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가전 제품과 같아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원인 전기코드가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게 하셨다. 인간들은 그 율법 앞에 무력감만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자.

“³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4).

율법의 요구는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알다시피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밖에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분만 바랄 수 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 때 예수님이 나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셨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다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날마다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런 당신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다. 당신을 향한 구원은 그렇게 완성된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구원받기 전 당신은 어떤 자였습니까? 구원 받은 후 당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